

김정일 美 암살 우려 은둔?

테러지원국 해제와 동시에 군부대 시찰 사진 공개

2003년 북핵 위기때도 49일간 종적 감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시점(10월11일)과 와병실 속에 두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찰 사진이 공개된 시점(10월11일)이 비슷해 별개로 보이는 두 사안이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모습은 지난 8월14일 군부대 시찰에 대한 보도가 나온 이후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날은 북한이 관계국들에게 핵시설 불능화 중단을 통보하고 위기지수를 막을리기 시작한 시점과도 정확하게 겹친다.

즉, 날짜상으로도 보면 북핵 위기 지수가 한껏 올라갔던 지난 두달 간 김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중단했고 위

기상황이 해소된 시점에 다시 등장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분석은 김 위원장의 은둔이 건강이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미국과의 핵협상과 관련해 장교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관측과도 맥이 닿아 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사진상 김 위원장의 모습에서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등으로 북핵 위기가 높아지면서,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만약에 있을지 모를 미국의 표적공격을 피하기 위해 은둔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03년 2~4월에 북한이 핵무기비

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1.10)하고 이라크전이 발발(3.20)하는 등 위기지수가 한껏 올라간 상황에서 49일간 종적을 감춰 미국의 암살을 우려해 은둔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떠돌기도 했다.

물론 이같은 분석들은 모두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이 실제 최근 김 위원장의 활동상황을 담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사진 속의 풀과 나무에서 가을보다는 여름 분위기가 나는 점 등으로 미뤄 최근이 아닌 7~8월 즈음에 촬영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 역시 "김정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사진에 나타난 자연환경으로 미뤄 7~8월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G7 금융위기 공동대처 합의”

부시 “필요한 모든 조치 동원 극복할 것”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이번 금융위기 해결에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G7 재무장관들과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위기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세계경제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이번 금융위기가 중대한 국제 위기이며 우리 국민을 위해 진정한 국제

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번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G7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정부가 위기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기 해결에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과거에 강대국들이 서로 반복해 위기가 있었다면 지금도 “지금도 다르다”면서 “이번 주말 워싱턴에 모인 지도자

들은 같은 목표를 위해 모두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또 이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환영하면서 G7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한국 등 20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와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반드시 계속 협력해야 하고 우리의 조치들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 국가의 조치가 다른 국가의 조치와 상반되거나 이를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부(富)를 끌어 이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IMF, 선진국-신흥국 금융협력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IMFC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경제위기는 매우 깊고, 널리 확산돼 있어서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에 특별한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신흥시장국가와 선진국들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C는 금융위기로 자금부족에 직면한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할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IMFC는 또 긴급금융지원절차를 이용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을 돕기 위해 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IMFC는 또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전날 발표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성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IMF 총재는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지적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스트라우스-칸 총재는 세계가 금융위기로 시련을 겪고 있지만 식량가격 급등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또 다른 위기를 잊으면 안 된다면서 선진국은 빈국들에 대한 원조를 줄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英, 4대銀에 사상 최대 공적자금

영국 정부가 자국의 4대 은행에 13일(현지시간) 350억 파운드(605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요신문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1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영국 정부가 국내 최대 모기지 은행인 HBOS와 스코틀랜드왕립은행, 로이즈 TSB, 바클레이즈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HBOS와 스코틀랜드왕립은행 등 적어도 2개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장가치가 120억 파운드 이하로 떨어진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은 최근 정부에 150억 파운드 지원을 요청했으며, HBOS와 로이즈 TSB, 바클레이즈도 정부에 각각 100억, 70억, 30억 파운드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인민군 제821부대 산하 여성포종대를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진 속 나무와 풀 등의 상태로 미뤄 최근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일면서 시찰 날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北 매체들, 김정일 시찰·담화 반복 보도

북한의 대내외용 매체들이 11~12일 한 달 넘게 건강이상 의혹을 받아 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소식과 담화 발표 내용을 되풀이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인민군 제821부대 산하 여성포종대 시찰 소식을 전한 뒤 같은 날 아침부터 밤까지 조

선중앙방송 8차례, 평양방송 7차례, 조선중앙텔레비전 5차례 등 모두 20차례나 재방송으로 내보냈다.

대내외 라디오방송인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2일 오전에도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소식을 각각 2차례와 1차례 전해 이틀째 보도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발표했다는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

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는 10일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 중앙통신 등이 일제히 소개한 데 이어 11일에도 중앙방송 5차례, 평양방송 4차례, 중앙TV 3차례로 총 12회 재방송했다.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는 12일 오전 이 담화 내용을 한차례씩 더 보도했다. /연합뉴스

페일린 권력 남용 확인...매케인에 치명타

미국 알래스카주(州) 의회는 10일 새라 페일린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알래스카 주지사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주 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주 의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페일린이 주지사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부하를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페일린 후보가 자신의 여동생의 전 남편을 주 경찰관에게 해임시키기 위해 주 경찰청장 윌트 모넨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다 이를 거부한 모넨 청장을 해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사해왔다.

김 엘튼 조사 위원장은 위원회가 페일린 주

지사에 제재를 가하거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페일린의 권력 남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현재 대선 레이스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치명타를 받게 됐다. 보고서 발표 직후 공화당 선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 조사가 버락 오바마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이 주도했고 페일린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권력을 사용했다며 조사 결과를 즉각 부인했다.

테일러 그리핀 본부 대변인은 “미국인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받은 조사 결과와 합리적인 사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체첸서 강진

13명 사망 100여명 부상

러시아 체첸지역에서 11일 강진이 발생, 최소한 1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밝혔다.

러시아 보건부 대변인은 이날 “체첸 동부지역에서 지진이 발생 12명 이상이 숨졌다”면서 “사망 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시아 보건부는 이후 어린이 3명을 비롯해 모두 13명이 숨졌다고 정정했다.

이날 지진은 정오(현지시간)에 카프카스 산맥 일대를 뒤흔들었으며 리히터 규모로 진도 6.3을 기록, 도로·전력망·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다.

이날 지진은 인근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등에서도 감지될 정도였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근린주택/상가)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오차동	503/794	19,850,000	11,90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안동동	135/113	4,950,000	3,95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안동동	194/134	12,870,000	9,90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안동동	458/778	6,300,000	4,90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우산동	316/172	13,970,000	9,90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우산동	156/180	1,980,000	1,4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황계동	968/412	5,980,000	4,9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우산동	623/640	10,980,000	7,9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황계동	221/414	2,980,000	1,9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345/775	7,980,000	5,9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458/480	2,980,000	1,9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197/647	14,970,000	9,970,000	주거주택(2층)

▶주목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오차동	144/180	19,940,000	7,900,000	2층, 2중주택
북구	안동동	137/114	19,800,000	19,490,000	2층, 2중주택
북구	안동동	150/142	9,400,000	4,200,000	2층, 2중주택
북구	안동동	275/100	9,820,000	6,870,000	2층, 2중주택
북구	개동동	314/284	19,870,000	19,170,000	2층, 2중주택
북구	개동동	72/182	8,900,000	4,850,000	2층, 2중주택
북구	개동동	109/75	6,700,000	4,700,000	2층, 2중주택
북구	개동동	148/186	19,220,000	6,870,000	2층, 2중주택
북구	개동동	235/188	2,980,000	1,9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개동동	192/75	9,500,000	5,500,000	주거주택(2층)
북구	개동동	288/546	19,800,000	7,490,000	주거주택(2층)
북구	개동동	687/284	4,870,000	2,730,000	주거주택(2층)
북구	개동동	305/184	19,830,000	19,400,000	주거주택(2층)

▶아파트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중앙동	82	102	8300만	6510만
북구	중앙동	102	102	8100만	6370만
북구	중앙동	76	76	5500만	3950만
북구	중앙동	102	102	8700만	6900만
북구	중앙동	108	108	14,500만	8050만
북구	중앙동	118	118	7200만	5040만
북구	중앙동	118	118	29,500만	19,900만
북구	중앙동	148	148	12,400만	8900만
북구	중앙동	78	78	7500만	5250만
북구	중앙동	98	98	8000만	3500만
북구	중앙동	102	102	8000만	3500만
북구	중앙동	158	158	19,800만	11,900만

▶주택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중앙동	76	76	5900만	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4100만	287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다세대(빌라)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중앙동	75	75	5900만	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4100만	287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공정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중앙동	198/594	6,980,000	4,9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209/611	11,900,000	8,90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332/483	300,000	179,80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1921/1018	4,980,000	2,9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2007/1463	5,980,000	2,9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6002/1647	110,000,000	9,980,000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19885/4185	19,970,000	4,972,000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3470/704	2,970,000	1,971,000	주거주택(2층)

▶다세대(빌라)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중앙동	75	75	5900만	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4100만	287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북구	중앙동	88.3	88.3	19,800만	14,500만

▶기타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중앙동	3608	4930만	3500만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1000/200	5000만	3300만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989/264	19,980,000	7640만	주거주택(2층)

▶농가권면시설

지역	소재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중앙동	808/323	4000만	1430만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2162/712	11,000,000	6200만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1679/394	5050만	2260만	주거주택(2층)
북구	중앙동	2300/771	19,100,000	7720만	주거주택(2층)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

(일본/분야)

일본어 Professional에 도전한다! 능력개발은 성공적인 미래와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

9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호남직업전문학교와 함께 일본어 연수와 일본어 취업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JAVA 프로그램 개발자” 과정

교육 내용

- 리눅스, 네트워크, java프로그래밍 등 IT분야와 일본어 기초부터 회화까지!

연수 일정

2008. 9. 29 ~ 2009. 5. 28 (8개월)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사내 모두 지원가능 (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에 한함)
- 일본 취업 후 일본 IT회사에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
- 해외(일본) 취업 및 취업비자 발급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 요건을 고려하여 학력, 경력 등 지원자격 요건이 추가될 수 있음
- 4년제 및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IT관련학과, 전산 및 컴퓨터계열학과, 일본어과 우대)

※ 일본취업 연수생 및 일본취업비자 취득자 우선선발

※ 호남직업전문학교 재직(연수생)인 경우 그 수혜자는 제외

특징

- 해외취업 IT분야 교육비용 국비지원 (일부 본인 부담)
- 교육과정 연수자 전원 **최신형 노트북** 지급
- 수료 후 소정의 능력 보양자 **전원 해외 취업** (일본/분야)
-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예정!

연수비용 지원기관

노동부 MY WORK TOMORROW
Ministry of Labor

한국산업인력공단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전화 ☎ 062-605-8008, 2, 4
http://www.honam.or.kr 위치: 개령동사거리(구시청 맞은편)

N AVER 호남직업전문학교 검색 imBC 찾아라 그곳 선정! (http://findtv.imbc.com)